



봉우 컬럼

사람이 따뜻해야지!

필리핀 마닐라예수중심교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에 도착하니 내 귀에 신민호 목사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렸다. 그 중 하나가 신 목사가 성도들에게 너무 엄하고 딱딱하게 대한다는 것이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는 통역하는 자매와 행정을 보는 자매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준 후에 “나랑 신 목사 중에 누가 더 좋으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두 자매 모두 내가 더 좋다고 했다. 나는 신 목사에게 “거봐라. 이게 인지상정이다. 무섭고 딱딱하게 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니? 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하더라도 단에서 내려오면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자고로 사람은 온유해야 해.”라고 말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고 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 바로 온유한 자다. 온유(溫柔)란 따스할 온(溫)에 부드러울 유(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를 말한다. 열음이 따스한 기운으로 인하여 녹아 물이 될 때 움직이듯, 사람의 마음도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마음에 열리고 움직인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자기가 성공할 상이 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다가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는 말에 용기를 얻고 좋은 마음 갖기에 힘썼단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많이 얻어 거사를 논할 수 있었고,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동물의 세계를 봐도 그렇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포악한 동물이 많아질 것 같지만 생각 외로 토끼 같은 연약한 동물의 개체 수는 늘어만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다. 사나운 것은 도태되고, 온유한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들어가기 때문이다(마5:5). 꿀을 얻기 원하는가? 꿀통을 발로 차지 말라.

필리핀을 제2의 멕시코로 복음화 하자!

지난 2005년부터 10년을 넘게 필리핀(Philippines)을 드나들며 항상 느끼는 바지만,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해안이 없으면 도무지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수도 마닐라(Manila)를 비롯한 대도시들은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도로에 차들은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거리마다 항상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지옥이다. 그 수많은 차들이 몇 년 동안 길거리에 뿌려대는 기름 값이면 도로들을 새로 건설하고도 남는다는 자조적인 말들이 나올 지경이다. 세계적

역사를 필리핀에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라고 믿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이번 필리핀 방문은 신민호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예수중심교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지만, 목사님은 더 큰 그림을 구상하고 계셨다. 앞으로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계획함에 있어 이전처럼 중남미를 비롯한 원거리를 지속 공략한다는 것은 목사님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문만 열린다면 할 일 또한 무궁무진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미 길을 닦아놓

들이 모를 리 없었을 터,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어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도원처럼 대용량 에어컨 2대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었다. 그런데 이튿날 알아본 결과 그 지역에는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대용량 에어컨은 당장 설치가 불가능하고 대신 가정용을 여러 대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목사님은 이튿날 오전, 장로님들과 함께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산업용 전기를 끌어오는 방안에 대하여 냉방효과를 위해서는 개방된 출입구 쪽을 막고 천장 단열작업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다. 그리고 저녁집



필리핀 마닐라 집회(필리핀 마닐라예수중심교회)

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동남아시아 시장은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아무리 기회가 찾아와도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가 부족한 형편이니 과연 그 성장세에 필리핀이 편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우리가 필리핀에 주목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400여 년 가까이 스페인(Spain) 통치를 받은 역사로 인해 필리핀은 가톨릭이 깊이 뿌리내려있는 나라이다. 즉 가톨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있는 것이다. 마치 멕시코(Mexico)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멕시코 65개 도시를 메주 밭듯 돌며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은 곳 중에서 영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필리핀은 목사님 표현대로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방문에는 인천교회의 조의수 장로와 국순창 장로가 동행하였다. 집회 첫날,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에 성전에는 대용량 선풍기와 냉풍기가 굉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도무지 그 소음 때문에 너무 어수선한 상태인지라 목사님은 모든 기기를 끄고 설교하셨다. 조용해진 했지만 짐통더위에 성도들은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목사님은 지금 이 교회에 당장 필요한 것은 에어컨이라 말씀하시며 두 장로를 단상으로 불렀다. 왜 목사님이 부르시는지 축이 빠른 장로님

회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영어와 타갈로그어 3자 통역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목사님은 온몸을 땀으로 적시는 열정으로 혼신을 다하셨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태어날 때부터 병어리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아 눈물과 기쁨과 환호의 도가니가 되었다. 목사님은 세부(Cebu)예수중심교회 유상진 목사를 비롯하여 두 장로님들에게도 귀신을 쫓으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소동이 일어나는 현장이었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나면서부터 병어리었던 여인의 고침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쁨과 눈물로 하나가 되었다



귀신이 요동하여 단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말3:13~18)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남들은 주일에 가족이랑 친구랑 놀러가고 그래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주일성수는 물론이고 철야예배, 구역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실일조 거른 적이 없이 꼬박꼬박 드려보야 소용없어. 여전해”,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밤 먹듯 해봤는데 달라진 게 없어. 그냥 편히 사는 게 나아.”

이런 푸념 해봤지요? 또 들어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말3:13~15).

말라기서 1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말1: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한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무려 1,700년이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보니 실의와 회의에 빠져 신앙이 점차 냉소주의적 색채를 띠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번포스럽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목사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살아요.”, “기도해보야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요즘 우리와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3:16~18). 고난과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기념책에 기록된 자는 정한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처는 환난이 몰아닥치자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욥2:9)라고 했지만,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욥2:10)라며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 우리 를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기 전,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무조건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4~6).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치 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롬9:10~13).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의외로 편안한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볼까요?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바로 앞에서 한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을 대변해줍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창47:9). 사는 게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선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



총회장 이초석 목사

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11:35~38).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도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고난과 핍박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이 그랬고, 사울과 압살롬에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편을 통해 노래한 다윗이 그랬으며, 목숨을 거둬달라고 할 만큼 힘들었지만 모세는 예수님의

충성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히3:5~6).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목회 30여 년 동안 물 없는 사막을 건넌고, 눈 덮인 산야를 걸었습니다. 이단이니 가짜니, 사기꾼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니 살인자니 차마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핍박과 모함을 받았습다. 안으로는 가정이 깨지고, 어머니에게 쫓겨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아픔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주의 종이 된 것을 후회한 적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다. 오히려 더욱 감사했고,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자 이제는 저를 높이시고, 세계를 저에게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다.

어려울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다. 다윗도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제물을 행하였으리이다”(시73:15). 그러나 그가 깨닫고 돌이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시73:25~26)고 말했습다.

여러분,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애3:33),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렘29:11). 다만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녹을 제거하는 과정을 두신 것입니다. 그 때 감사하면 장식이 쓸만한 그릇이 될 것입다. 그분은 지금도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렘31:3).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릅니까? 이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념책에 적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실 것입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객원컬럼::

실패보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1960년대 까지 인류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요소 가운데 하나가 B형간염 바이러스였다. 간암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이요, 이로 인해 무려 80%이상이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1970년 대 이후로 그 위협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백신이 개발된 것이다!

세계 최초로 B형간염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다. 서울의대 김정룡 박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용화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몇 년 후, 미국과 프랑스 연구소에서 백신을 개발한 뒤에야 비로소 인가가 떨어졌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나라 관계기관(보건사회부)에서 이를 증명할 기준, 또 이를 세계에 공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항상 남의 뒤를 따르는 습관에 길들여지다 보니 선뜻 세계 최고라고 선언하기가 두렵고 또 낯설게 여겨진 때문이다.

승리를 해본 경험이 승리로 이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에서 세계 무대에 서본 이들이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사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수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 승리의 이면에는 엄청난 도전과 숭한 실패의 경험들이 자양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울 싱어는 자신의 저서 ‘창업국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 날, 전 세계 경제, 사회, 정치, 문화계에 무시 못 할 영향력을 끼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저력은 과연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후츠과 정신 때문이다.”

‘후츠과 정신’이란 우리 식대로 풀어서 이해하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 결국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 실패하기보다 외려 도전하지 않는 것을 더욱 부끄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현재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실패와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인 것이다.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 하던 전통적 가르침은 ‘너무 튀지 말고 중간만 차지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했다. 이것이 ‘적당히, 이쯤이면’으로 통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망국병을 낳은 것이다.

변해야 산다. 살아남으려면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의식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때, 오히려 이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험뜯고 모함하여 깎아내리고, 그러다 잠시 비틀거리기라도 할라치면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짓밟아대는 그 살벌함이 사라져야 한다. 나의 뜻, 나의 생각과 다른 이들을 향해 버려진 낱선 검을 우리 입과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한다. 도전을 위한 출발선에 선 이들에겐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자. 실패보다 더욱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려는 그 나약함이다!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성경에세이::

경험이 제일 큰 지식이야

여보게!
자네에게 질문 하나 하겠네.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나 없나? 대답해보게.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걸로 봐서 잘 모르는 것 같구먼.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하겠네. 문경새재에 문이 있나 없나? 역시 모르는 구먼. 내가 알려주지. 남대문에는 문지방이 없고, 문경새재에는 문이 있다네. 어떻게 잘 아냐고? 나는 가봤거든. 남대문도 문경새재도 가봤으니까 정확히 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 줄 아냐? 가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얘기하는 자라네. 가봐야 설명을 하고, 만나봐야 알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 아니겠나. 남들이 수박은 파랗다고 해도 먹어본 자는 그 속은 빨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사막에서는 늙은 낙타를 타야 하고, 전장에서는 백전노장의 말을 들어야 하네. 또 명 판결을 원하면 노(老) 법관을 찾아야 하고, 명쾌한 진료를 원하면 오랜 명의를 찾아야 하지. 늙은 소가 가장 곧은 고랑을 파는 법이거든.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는 걸세. 아무리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엘리트라도 우

리 어머니가 끓인 찌개 맛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은 경험부족 때문 아니겠는가.

여보게!
내가 주의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인복유치원 옥상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내가 이단이너 사이비네 해도 개의치 않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은 내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야.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누가 뭐란다고 내가 흔들릴까? 자기의 경험한 바를 어떤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아먹는 자야 말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 내가 남대문을 가보고, 문경새재를 봤으니 자신 있게 답한 것처럼,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 병 고침을 받아본 자, 주의 음성을 들어본 자, 축복을 받아본 자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라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6:17)고 고백한 걸세. 이 세상을 남의 지식으로 살지 말고, 자네의 경험으로 살아보게나. 경험은 최고의 지식이니까.

朋友

동지사랑

동지 없는 독두리

동지 없는 잉꼬새

님 없는 독두리

님 없는 잉꼬새

다들 봐 무어라

집 없고 님 없는 심사 누가 알랴

홍부네 추녀 밑 제비야

그만 쫓 지저 거라

집 없고 님 없는 설움을 네가 알랴

2016. 3. 15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을 바꾼 따뜻한 혁명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팔거나 송금할 때 어떻게 할까? 물물교환? 지폐? 카드? 모두 아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건너뛰고 휴대전화로 모든 결제를 시행한다. 대한민국 1인당 GDP와 18배 차이가 날 정도로 가난한 나라 케냐. 어떻게 국민의 68%나 되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결제, 송금, 인출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는 한 이동통신회사의 따뜻한 IT혁명에서 시작되었다.

케냐는 국민 중 40%가 극빈층으로 수수료 낼 돈이 없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은행도 도심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어 ATM기기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이다. 전화선이나 인터넷선도 원활히 깔려있지 않지만, 그런데 휴대폰 보급률은 국민의 80%가 넘는다. 그래서 ‘사파리콤’이라는 이동통신회사에서는 가난하여 은행 이용을 거부당하지만 휴대폰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계좌를 개설해주는 엠페사(M-pesa)를 내놓는다. 이는 휴대폰 번호를 계좌번호로 삼아 동네 슈퍼 등 엠페사에 가맹된 인근 상점에 가면 예금

과 출금, 송금, 결제가 모두 가능한 서비스이다.

2015년 케냐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 약 50조원의 금액이 엠페사를 통해 거래됐고, 이것은 케냐 경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로 인해 케냐의 경제가 살아났고, 투명한 급여체계, 세금 징수율이 높아지는 일까지 생겼다.

“돈이라는 애벌레는 프로그램을 먹고 사는데 좋은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신다. 가난하여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개발된 ‘엠페사’야말로 좋은 아이디어의 대표주자이다. 이 때문인지 작년 미국의 경제지 포춘(fortune)에서는 애플, 구글, 스타벅스, 페이스북을 누르고 ‘엠페사’를 개발한 케냐의 작은 회사 사파리콤에게 ‘세상을 바꾼 혁신 기업 1위’의 영광을 주었다. 이처럼 좋은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꾼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후천적인 성품

흔히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 겸손한 태도, 배려하는 자세, 좋은 성격은 그냥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낮아지길 원하고 말 다툼에서 저주길 좋아하고 화를 잘 참는 사람은 없어요. 외국어나 운전, 수영처럼 수없이 연습하고 반복한 후에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어렸을 적 저희 교구에 성격이 정말 은혜로운 집사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주일 교구버스를 운전하셨는데 그 버스를 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였지요. 화도 잘 내고 꼭 사람속을 긁는 말만 골라 해서 당시 10대였던 저조차 그분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늘 의문이었던 게 그 집사님의 기도였어요. 매일 기도처에서 적어도 두 시간씩 누구보다 오래 기도하셨는데, 그러고 뒤돌아선 똑같이 사람들에게 성내고 말로 상처 주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됐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지만 그대로였습니다. 그 후로 더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느 샌가 그분의 예전 성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세상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헐기 내지도, 남에게 상처주지도 않았고요. 분을 참지 못해 끊임없이 화개하고, 그런 자신을 고쳐보려 줄곧 노력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품이 확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나쁜 습관도 즉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참 편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욕하게 되고, 변함없이 포기하고 싶고, 자신감은 계속 바닥이고, 어제와 같이 입술은 부정적입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지요. 베드로의 말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선 힘써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 덕을 더해야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는다.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여러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나요? 나는 원래 부정적인 성격이라고, 원래 소심하다고, 원래 질투가 많다고 그냥 자신을 내버려두는 건 아닌지요. 원래 성격이 어쩔 건, 딱 오늘날이라도 힘써 부정적인 말을 참아보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보자, 나쁜 습관을 참아보자, 남을 위해 기도해보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힘써 다독이고 교육할 때, 부족한 성품은 사라지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성장기 아이의 몸에 좋은 음식

오늘은 몸이 허하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소개하고 가정에서 복용할 수 있는 건강 한방차들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강마르고 까다로운 아이에겐 소건중탕을 처방하는데, 소건중탕은 계피, 생강, 대추, 작약, 교이, 감초로 구성된 처방으로 식욕이 떨어진 아이들이나 성인들에게 제일 많이 다용되는 처방이다. 각 약재별로 하루에 2그램씩 복용한다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식욕도 늘리고 체력도 보충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 소건중탕이 좋다’고 하면서 입맛을 돋우고 살이 찌게하며 정신력을 키우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다. 소건중탕은 맛도 달고 먹기에도 좋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고 유난히 기운이 없고 땀을 잘 흘리는 아이인 경우 한의사와 상의해서 먹이면 틀림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면역력과 힘이 없는 아이에겐 가막조개. 흔히 재첩이라고 불리는 가막조개는 인과 칼슘이 1대 3의 비율로 풍부하게 들어있어 칼슘이 부족하기 쉬운 성장기 아이에게 좋은 효과를 낸다.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신체의 저항력이 저하되며 야위고 뼈가 약해지게 되는데, 가막조개

로 국물을 낸 다음 여기에 잘게 썬 쇠고기와 배추를 볶다가 두부와 가막조개살을 넣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면 영양공급을 통해 뼈가 건강해진다.

세 번째로, 야위고 마른 아이에겐 청어구이. 동의보감에 의하면 ‘청어는 맛이 달고 평하며 무독하고 익기작용이 있어 기력을 돋우고 심력을 돋운다. 또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식욕을 늘린다’고 했다. 무시를 볶아 가루 낸 것을 소금에 섞어 청어를 찍어먹으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네 번째로, 성장기 아이에게 좋은 굴. 흔히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대단하며,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아주 많고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소화흡수율이 굉장히 뛰어나고, 인체 에너지원인 글리코젠이 많아 장의 기능을 촉진시키며 아이들 성장에 도움을 준다. 다만 굴은 5월부터 8월까지 산란기라 맛과 영양이 떨어지고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이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좋은 건강식품이라도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그 효능과 효과와 무관하게 중단해야 한다. 음식도, 건강식품도 아이의 체질에 적합할 때 제 효과가 나오게 된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참된 깨달음::

싫지만 꼭 필요한 고난!

고치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애벌레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오지 못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고치를 찢어서 애벌레를 꺼내주었는데, 그렇게 고치에서 나온 잠자리는 계속 퍼떡 거리더니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꺼내주면 훨훨 날아갈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죽어 버렸을까요?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쓸 때 그 몸에서 진액이 나와 그 진액이 기름이 되어야만 훨훨 날 수 있는데 고치를 찢어서 애벌레 스스로가 겪어야만 하는 고난의 시간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날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싫지만 꼭 필요한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잘 극복하면 강한 기름이 만들어져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운 아브라함, 갑절의 축복을 받은 고난의 사람 욥,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인생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 속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뽐내지 않는 겸손한 향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절망을 선택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싫지만 꼭 필요한 고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춘계산상집회

5월 2(일) ~ 5(목)
예수중심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Good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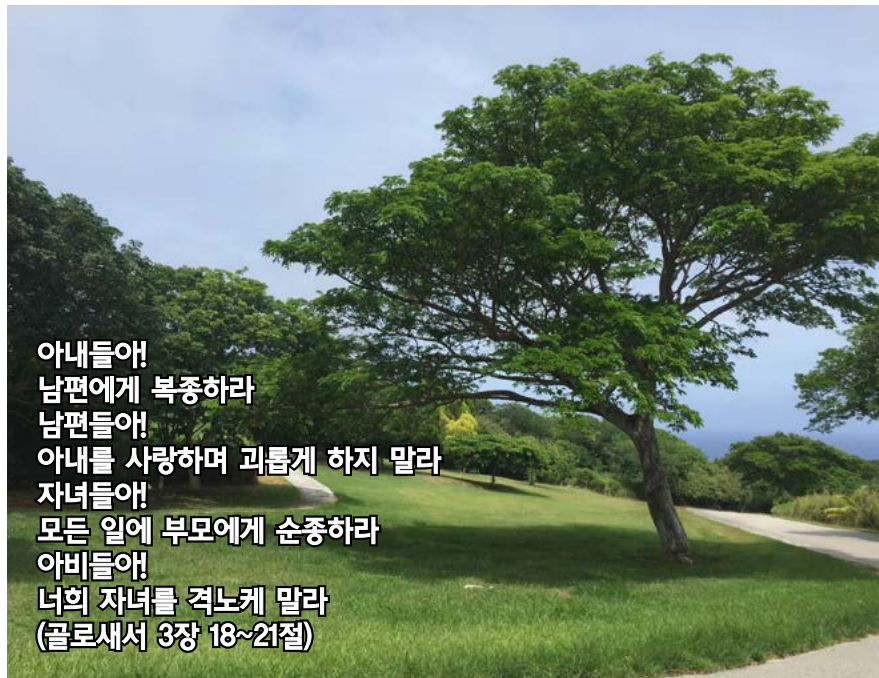
세계 최강대국이며 최선진국인 미국에서 산불이 나서 며칠 동안 불길을 잡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번져나가는 뉴스를 접하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최첨단 장비와 수많은 소방대원들과 군인들까지 동원해도 불을 끄지 못하다가 잠시 잠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하여 불길이 잡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1941년 미국의 뉴저지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형 산불을 끄기 위해 투입된 군인들 중 80명이 불길 속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때 마침 상공을 지나던 경비행기 조종사가 위험에 처한 군인들을 발견하고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쪽지에

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으니 자신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따라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다행히 80명의 군인들은 조종사의 인도를 따라 대피하여 모두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무서운 영벌의 세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할 길이 있으니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안내자요, 인도자입니다. 그 분만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아내들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들애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라
(골로새서 3장 18~21절)